

# 13세기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중심으로 —

윤봉택\*

<차례>

- I. 서론
- II. 13세기 濟州島의 대외 관계와 佛子 事實 조명
- III.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 사실 자료 연구
- IV. 『금광명경문구』 판각에 따른 분석 고찰
- V. 결론

##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34년 기록한 「조계산송광사사고」와 1938년에 조사 편집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중심으로 13세기 제주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에 대한 사실 확인과 사료적 가치를 살펴본 것이다. 「순천송광사장고려판천순판불전」은 조선고적연구회에 의하여 제주 묘련사판이 비교적 상세하게 형태사항이 기술되었고, 또한 인본을 촬영 인화하여 첨부함으로써 사료의 가치를 높여 주었다. 그동안 고려판 금광명경문구를 인용하면서 여러 오기가 나타났으나 본 자료를 통하여 사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본 판본류가 지금까지 제주도에 서 판각된 판본류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석사과정)

## I. 서론

금광명경(金光明經)은 석가여래가 王舍城<sup>1)</sup>에 있는 기사굴산(耆闍崛山)에서 처음 信相菩薩과의 대화로 시작되어 설법한 경전이다. 이 경에서 석가여래는 금광명경이 모든 경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경 중의 왕이라고<sup>2)</sup> 하여 이 경이 간직하고 있는 의미를 크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 경전은 신라조부터 중국에서 전래되어 궁중<sup>3)</sup>에서 주로 법석이 베풀어질 정도로 호국경전이 되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金光明經文句』가 寺刹板本으로 板刻되기는 해 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再雕大藏經板’이 彫造(1236~1251)된 후 45년이 지난 충렬왕 22년(1206)일이며, 제주도의 妙蓮社<sup>4)</sup>에서 판각된 이 『金光明經文句』는 현재 까지 제주도에서 彫造된 木板本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것 중 고려조 제주도에서 발간된 유일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제주 묘련사에서 판각된 『金光明經文句』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국내의 현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인<sup>5)</sup>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판각된 판본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 事實에 대하여서도 인용자에 따라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본 고에서는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사실

1) 王舍城, 지금의 인도 벵갈(Bengal)州 파트나(Patna)시의 남쪽에 있는 지역.

2) 北京 三藏法師 曇無讖 譯, 『金光明經』, 海印寺所藏, 木板本, 卷第一, 金光明經序品第一; ‘是金光明 諸經之王 若有聞者 則能思惟 無上微妙’, 第一張. 7行.

3) 一然, 『三國遺事』, 影印本(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3), 卷第四, 義解第五, 賢瑜伽 海華嚴 條, ‘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夏大旱詔入內殿講金光明經以祈甘霖...’

4)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佛宇 條; “妙蓮寺 在州西南二十里 .....”

5) 2006. 3. 3~4. 2일 동안 순천시 소재 조계산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古鏡스님과 이를 조사하였으나, 송광사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을 살펴보기에 앞서, 판각 시기인 13세기의 제주와 고려·몽고 등과의 대외 관계를 조명한 후, 제주도의 사찰 관계를 살펴보고 당시 본 경전이 소장되었던 송광사의 「曹溪山松廣寺史庫」<sup>6)</sup>와 1938년 송광사 소장 고려판 불전의 형태적 특징을 조사한 장서각 소장 「順天松廣寺藏 高麗板 天順板 佛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제주도에 판각된 목판본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으로 확인된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의 事實에 대하여 분석·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II. 13세기 濟州島의 대외 관계와 佛宇 事實 조명

13세기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판각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탐라와 고려 그리고 삼별초의 입도·몽고와의 관계 등 시대상황과 불우 관계를 먼저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13세기의 탐라는 천년 耽羅國時代가 막을 내리고 고려조의 한 지방 행정구역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고려조에서는 건국 이래 전대 미문의 오랜 기간동안 몽고지배가 시작되었고, 아울러 金通精의 삼별초 입도와 함께 탐라 또한 고려와 몽고의 동시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제주도에 『金光明經文句』가 판각된 1296년 전후 격동기의 탐라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서 『金光明經文句』를 판각한 묘련사에 관한 것을 사실 자료를 통해 불우와 신앙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6) 松廣寺, 「曹溪山松廣寺史庫」 권4 4책, 稿本, 송광사 소장. 1934년간. 「雜部」 32張  
上. 『金光明經文句疏卷下』 元貞三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車冊?

## 1. 고려와의 대외 관계

제주도는 高·梁·夫 삼성이 신라에 입조하여 耽羅國이라는 국호를 받은 이후, 숙종 10년(1105)에 탐라국이 사실상 폐지<sup>7)</sup>되고 耽羅郡·縣·牧 등으로 강등되면서 탐라국이라는 국호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탐라국이 고려조와의 관계는 신라가 망할 무렵, 고려 태조 8년(925) 11월 탐라국에서 고려조에 사신을 보내어 方物<sup>8)</sup>을 바치면서 시작되었다.

현종 3년(1012) 8월에는 탐라국에서 대선 두 척<sup>9)</sup>을 지어 바쳤고, 문종 6년(1052)에는 해마다 橘 100包子<sup>10)</sup>를 바치도록 했다. 문종 12년(1058) 8월에는 왕이 탐라와 영암 지방에서 재목을 벌채하여 대선을 만들어 宋나라와 通交하려했으나 문하성에서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오직 해산물과 배 타는 것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새로 사찰을 짓기 위하여 탐라에서 재목을 베어 바다를 건너 이송하느라 이미 그 노고와 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다면 어려운 일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왕이 중단하도록 했다.<sup>11)</sup>' 문종 27년(1073) 11월에는 탐라에서 팔관회에 참석하여 예물을 바쳤다.<sup>12)</sup> 숙종

7) 『高麗史』志, 地理, 全羅道, 耽羅縣 條; '太祖二十一年 耽羅國太子末老 來朝 賜星主。王子爵 肅宗十年 改毛羅 爲耽羅郡'

8) 『高麗史』世家 太祖 乙酉 八年 十一月 己丑; '耽羅, 貢方物'

9) 『高麗史』世家 顯宗 壬子 三年 八月 壬寅; '耽羅人, 來獻大船二艘'

10) 『高麗史』世家 文宗 壬辰 六年 三月 壬申;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 從之'

11) 『高麗史』世家 文宗 戊戌 十二年 八月 乙巳; '宋商黃文景等 來獻土物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 且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產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12) 『高麗史』世家 文宗 癸丑 二十七年 十一月 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翼日大會 大宋·黑水·耽羅·日本等諸國人 各獻禮物名馬'

10년(1105) 탐라국이 폐지되고 탐라군으로 강등되면서 고려의 한 지방으로 편제되었다. 의종 7년(1153) 11월에는 탐라현에서 12명이 와서 방물을 바쳤으며, 이 시기에 탐라군에서 탐라현으로 강등되었다.

1162년(의종 16년)에 고려조에서는 崔陟卿을 탐라현령의 관리로 파견하였고, 1168년(의종 22년)에는 탐라에서 민란이 발생하자 탐라안무사 趙冬曦가 선무하였다.

1260년(원종 1년) 1월에는 '제주부사 判禮賓省事 羅得璜으로 방호사를 겸하게 하였다. 조정의 의론이 제주는 해외의 巨鎮이라 송나라 상인과 섬의 왜가 무시로 왕래하니, 마땅히 특히 방호별감을 보내어 비상에 대비할 것이로되 그러나 구제에는 다만 守倅뿐이니 따로 방호별감을 두는 것이 가하지 못하다 하여, 드디어 羅得璜으로 겸임하게'<sup>13)</sup>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와 고려와의 관계는 고려 개국 초에는 상호 평등관계에서 출발한 것 같으나, 이때부터 사실상 주종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1105년 탐라국에서 탐라군 등으로 강등되면서 고려에 예속되게 되었다. 당시 제주에는 기후적·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아열대 수종인 후박나무·담팔수나무·녹나무 등 목재나 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형성되어 대형 선박이나 사찰 건립에 필요한 목재들이 강제로 몽고나 고려로 보내졌고, 이러한 목재들은 대장경 제조<sup>14)</sup> 등에도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에는 후박나무와 담팔수<sup>15)</sup>·녹나무<sup>16)</sup>·각종 난대림지대<sup>17)</sup> 등이 해안 가까이 까지 많이 자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13) 『高麗史』 世家 元宗 庚申 元年 二月 庚子 條.

14)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2004), p.149.

15) 천연기념물 제163호, 「서귀포 담팔수 나무 자생지」, 1966. 1. 31(지정).

16)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1964. 1. 31(지정).

17) 천연기념물 제375호, 「남읍난대림지대」, 1966. 1. 31(지정).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 2. 몽고와의 대외 관계

탐라와 몽고와의 교통은 원종 7년(1266) 11월 '제주에서 星主가 고려 조에 입조하자 正言 玄錫을 보내 성주와 같이 몽고<sup>18)</sup>로 간 것이 처음이다. 이후 원종 9년(1268) 10월 원종은 배 천여 척 짓는 것과 관련하여 탐라에서 별도로 배 백 척을 별도로 건조하도록 하여 일본 정벌에 필요한 선박을 제주에서 건조하였다.

몽고가 명위장군 도통령 탈타아와 무덕장군 통령 王國昌과 무락장군 부통령 柳傑 등 14인을 보내왔는데 조에 이르기를, 경(원종)이 崔東秀를 보내와 아뢰 바 병 1만을 갖추고 선 1천척을 만든다는 일로 이제 특히 脫朶兒등을 보내어 거기 가서 군수를 정점하고 주함을 점시하게 하였으니 그 만드는데 바 선척은 파견하는 관리의 지휘를 듣되 만일 탐라가 이미 조선의 역에 참여하였으면 번중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참여하지 아니하였거든 곧 1백척을 별도로 건조하게 하라. 그 군병과 선척은 정점이 족비되면 혹은 南宋이나 혹은 일본이 명령을 거역하면 정도할 것이니, 때에 립하여 宜를 제하고 인하여 관리를 보내어 먼저 가서 흑산도와 일본의 도로를 상찰하게 하노니, 경도 또한 관리를 차출하여 호송하여 도달하게 하라."<sup>19)</sup>

충렬왕 6년(1280) 5월에는 탐라에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삼천 척 분량의 목재를 공출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몽고에서는 고려로 하여금 탐라에

18) 『高麗史』世家 元宗 丙寅 七年 十一月 丙辰; '濟州星主 來見 甲子 遣正言玄錫以星主 如蒙古.'

19) 『高麗史』世家 元宗 戊辰 九年 十月 庚寅; '蒙古 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等十四人來 詔曰 卿 遣崔東秀 來奏 備兵一萬 造船一千隻事 今特遣脫朶兒等就彼 整閱軍數 點視舟艦 其所造船隻 聽去官指畫 如耽羅 已與造船之役 不必煩重 如其不與 卽令別造百艘 其軍兵船隻 整點足備 或南宋 或日本 逆命征討 臨時制宜 仍差去官先行 相視黑山 日本道路 卿 亦差官 護送道達 己亥 遣將朴臣甫 都兵馬錄事禹天錫 從國昌 劉傑等 往視黑山島.'

주둔하는 達魯花赤에게 스스로 예하에 있는 철장을 시켜 배를 수리<sup>20)</sup>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金光明經文句』 판각 시기까지 탐라는 고려의 한 지방으로서 몽고가 일본 등을 정벌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만드는데 사용될 목재 등을 주로 공급하고 또한 선단을 수리하는 등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20년(1294) 5월에는 고려조에서 元에게 탐라를 고려에 돌려 주도록 황제에게 요청하자 이에 황제가 돌려주었고,<sup>21)</sup> 같은 해 7월에는 고려에서 대장군 吳仁永을 전라도 지휘자로 삼아 탐라에 파견하였으며, 11월에는 탐라왕자 文昌裕와 탐라성주 高仁묘이 고려조에 방물을 바치는 등, 元의 귀속에서는 벗어났으나 말 등은 계속 바쳤다.

### 3. 삼별초와의 관계

삼별초가 원종 11년(1270년) 8월에 진도에 상륙한 후, 탐라에 입도한 시기는 원종 11년(1270) 11월<sup>22)</sup> 경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사전에 제주에 주둔한 고려군을 쉽게 제압하고 항거지를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제주에 부임했던 고려조의 관리들이 수탈로 인하여 탐라인들이 삼별초를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종 14년(1273) 4월 탐라에서 항거하던 삼별초가 고려와 원의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 토벌되자, 元나라는 탐라에 胡馬를 키우는 방목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元의 통

20) 『高麗史』世家 忠烈王 庚辰 六年 八月 癸酉; '元卿 自元發省旨來 令耽羅達魯花赤 自以其鐵匠 修戰艦.'

21) 『高麗史』世家 忠烈王 忠烈王 甲午 二十年 五月 甲寅; 太白晝見, 翌日, 亦如之. 耽羅人曲怯大·蒙古大·塔思拔都等, 如元, 獻馬四百匹. 王, 以四事, 奏于帝, 一, 請歸耽羅, 二, 請歸被虜人民, 三, 請冊公主, 四, 請加爵命, 帝命耽羅, 還隸高麗, .....

22) 『高麗史』世家 元宗 庚午 十一年 十一月 己亥; '賊 陷濟州'

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탐라는 공민왕 23년(1374) 8월 崔瑩에 의하여 원의 牧子가 완전 섬멸될 때 까지 고려와 元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 4. 地誌에 나타난 佛宇

제주도에는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조 초에 이르기 까지 창건된 사찰 중, 뚜렷하게 창건 연대가 확인된 사찰은 없다.

증종 25년(1530) 제주도내의 사찰은 15개소로서, 제주목에는 尊者庵 · 月溪寺 · 水精寺 · 妙蓮寺 · 文殊庵 · 海輪寺 · 萬壽寺 · 江臨寺 · 普門寺 · 逝川庵 · 小林寺 · 觀音寺 등 12개소, 旌義縣에 靈泉寺 · 成佛庵 등 2개소, 大靜縣에 法華寺 등 1개소<sup>23)</sup>가 있었으나, 이미 폐사되거나 훼손된 사찰이 많았다.

1578년 林悌가 지은 「南溟小乘」 2월 15일 條에는 '백록담을 둘러 본 후 頭陀寺로 향하였다.'고하여 雙溪庵이라 불려졌던 頭陀寺가 있었다.

선조 35년(1602) 「南槎錄」<sup>24)</sup>의 기록에는 水精寺는 元나라의 願刹로 고려조에 지었다고 전하고 있다.

효종 4년(1653) 도내 사찰은 19개소로서, 제주목에는 尊者庵 · 月溪寺 · 水精寺 · 妙蓮寺 · 文殊庵 · 海輪寺 · 萬壽寺 · 江臨寺 · 普門寺 · 逝川庵 · 小林寺 · 觀音寺 · 安心寺 · 郭支寺 · 元堂寺 · 頓水庵 등 16개소, 旌義縣에는 靈泉寺 · 成佛庵 등 2개소, 大靜縣에는 尊者庵(濟州牧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濟州牧 · 旌義縣 · 大靜縣, 佛宇 條.

24) 金相憲, 「南槎錄」, 木版本, 규장각 소장, 十八日 壬午 (條) '.....按水精寺 在郭支岳西距州十五里 卽元時皇后 所 勅願刹 制頗宏麗' -1601년 제주에서 일어난 길운절(吉雲節)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김상헌(金相憲)을 안무어사로 임명하여 8월 1일에 파견하였다. 10일 서울을 떠나 21일 해남을 출발하여 애월방호소로 상륙하였다. 이듬해 1월 24일 조천관을 통해 제주를 떠날 때 까지 제주도를 살펴보면서, 임금의 뜻을 전하며 보고 느낀 것을 일기 형식으로 쓴 자료가 남사록이다.



과 동일함)法華寺·窟庵 등 1(2)개소<sup>25)</sup>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폐사된 사찰이 月溪寺·妙蓮寺·郭支寺·法華寺·등 4개소였다.

### 5. 妙蓮社의 창건 연대 추고

제주도에 언제 불교가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제주도내에 현존하는 사찰 중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은 묘려사<sup>26)</sup>를 포함 法華寺·水精寺·尊者庵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지 못하고 있다.

법화사인 경우 중창불사가 원종 10년~충렬왕 5년(1269~79)<sup>27)</sup>까지 이뤄졌으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명나라에서 법화사의 불상은 원나라 良工이 제작하였다하여 靑銅彌陀三尊佛像이 태종 6년(1406) 7월에 명나라로 강제 이운<sup>28)</sup>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법화사는 비보사찰로서 1408년에는 노비가 280여명에 이를 만큼 사세가 컸었으나, 억불숭유 정책에 밀려 점차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水精寺에도 노비 130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妙蓮社와 동일하게 寺名이 法華社·水精社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妙蓮社는 법화사 중창(1269~79) 후 17년이 지난 충렬왕 22년(1296)에 「金光明經文句」가 관각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법화사와 같은 사운을 맞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창건 시기에 대하여도 고려조에 많은 비

25) 李元鎮, 『耽羅志』, 木版本, 單券 1冊. (1653년간) 濟州牧·旌義縣·大靜縣, 佛宇 條.

26) 북세주군 에워읍 광령리 774번지(현 내기시) 주민

27) 西歸浦市,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서울:大明企劃, 1998), p.28. '至元六年己巳始.....'. '始重創十六年己卯畢'.(銘文瓦片)

28) 『朝鮮王朝實錄』太宗 6年 4月 20日 庚辰; '上至館設宴. 酒酣 儼 辭以醉 先入室. 帖木兒曰:濟州 法華寺 彌陀三尊 元 朝時良工所鑄也 某等當徑取之 上殿曰 固當 但恐水入耳 帖木兒 等皆大笑'.

보사찰들이 건립된 것으로 보아 고려조에 창건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묘련사는 조선조에 와서 관찬기록에 妙蓮寺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여말선초에 '社'에서 '寺'로 사호가 변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1530년에 간행된 이 지지에는 妙蓮寺는 제주목 서남쪽 25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고려의 승려로 알려진 慧日이 妙蓮寺에서 지은 다음의 시 한수가 전한다.

南荒天氣喜頻陰	담라의 일기는 참으로 알 수가 없네
此夕新晴洗客心	오늘 저녁에는 나그네 마음을 씻길 수 있을지
一夢人生榮與悴	인생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
中秋月色古猶今	한가위 달빛만 변함이 없네
迢臨渺渺煙汀闊	멀리 보이는 물가의 연기를 바라보며
斜影沈沈竹屋深	그림자 비껴 선 집을 찾아 가는 길
賞到夜闌清入思	난간에 기대인 마음을 기다리면서
不禁頭側動微吟	가만스러이 혼자서 法悅을 읊조리네 <sup>29)</sup>

묘련사에서 이 시를 남긴 혜일스님이 어느 시기에 묘련사를 찾았는지에 대하여는 미상이나, 도내 사찰 여러 곳을 순례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 1047년(文宗 원년) 6월에 국사가 된 같은 이름의 慧日(決凝 964~1053)<sup>30)</sup>스님이 있으며, 또한 1339년에 『三十分功德疏經』을 판각한 慧

29)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濟州牧 佛宇 條; 妙蓮寺 在州西南二十五里 ○ 僧 慧日 詩 南荒天氣喜頻陰.....'

30) 『高麗史』, 世家 文宗 丁亥 元年 六月 乙卯; '王 率公卿大夫 如奉恩寺 以王師決凝 爲國師.' 法名은 決凝이다. 고려 초기의 僧侶로서 姓 은 金이며 字 慧日 시호는 圓融으로 溟州태생이다. 12살에 龍興寺에서 출가하여, 福興寺에서 具足戒를 받았으며, 991년(성종 8년)에 僧科에 합격하여 大德 법계를 받았다. 1041년(정종 7년)에 王師 가 되었고 1047년 6월에 國師가 되었다.

日<sup>31)</sup>스님이 있었다.

효종 4년(1653)에 만들어진 『耽羅志』에는 '妙蓮寺가 제주목 서남쪽 20리에 있으나 지금은 폐사되어 있다.'<sup>32)</sup>고 기록되어 있으나, 숙종 29년(1703) 당시 제주목사 李源祚가 지은 『耽羅志草本』에는 '妙蓮寺가 괘지악(오름) 서쪽에 있다.'<sup>33)</sup>고 하였다. 이로 보아 제주목의 서남쪽 20여 리는 지금의 제주시 서쪽 도근천 주변으로 보인다. 현재 妙蓮寺址로 알려지고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774번지에 있는 지금의 大覺寺이다.

1653년 『耽羅志』의 濟州牧 樓亭(條)<sup>34)</sup>에는 '鐘樓에 大門樓의 문을 여닫는데 시간을 알리는 鐘이 바로 妙蓮寺에서 제작된 오래된 鐘이다.'라고 하여 당시 제주목 관아의 鐘은 妙蓮寺의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 6. 妙蓮社와 妙蓮寺의 관계

표린사판 『金光明經文句』 판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기에 나타난 妙蓮社의 '社'와 조선조 지지에 나타난 妙蓮寺<sup>35)</sup>의 '寺'의 관계 정

- 31) 慧日; 1339년(忠肅王 8년)에 曺時雨와 鄭公衍이 시주하여 南永臣의 글을 쓴 『三十分功德疏經』을 僧侶 慧日이 새겨서 간행하였다.(서울 역사박물관 소장).
- 32) 李元鎮, 『耽羅志』, 木版本, 單券 1冊. 1653년간. 濟州牧 佛宇 條; '妙蓮寺 在州西二十里 ○ 僧 慧日 詩 南荒天氣喜頻陰 此夕新晴洗客心 一夢人生榮與悴 中秋月色古猶今 迥臨渺渺煙汀闊 斜影沈沈竹屋深 賞到夜闌清入思 不禁頭側動微吟.'
- 33) 李源祚, 『耽羅志草本』, 1703년(草稿) 影印本.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耽羅誌, 濟州, 佛宇 條; '妙蓮寺 在郭支岳西 ○ 僧 慧日 詩 南荒天氣喜頻陰 此夕新晴洗客心 一夢人生榮與悴 中秋月色古猶今 迥臨渺渺煙汀闊 斜影沈沈竹屋深 賞到夜闌清入思 不禁頭側動微吟.'
- 34)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樓亭(條); '鐘樓即營大門樓樓上懸鐘晨昏□之開閉城門本妙蓮寺所鑄古鐘也'
- 35)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濟州牧 佛宇 條; '妙蓮寺 在州西南二十五里'

림이 필요하다.

‘社’에 대한 유래는 東晉 때의 慧遠法師(334~416)<sup>36)</sup>가 廬山의 虎溪 東林寺에 있을 때 당시 고승들과 명유 등이 와서 향화로 공양하기를 청하자, 이에 법사가 중인을 모아 아미타불상을 세우고 다 같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서원하였는데, 이를 白蓮華社라 하며, ‘社’<sup>37)</sup>의 유래가 되었다.

대부분 기존 사찰명의 변경은 주로 새롭게 증창을 하거나, 또한 지정학적·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寺刹名에 ‘社’의 명칭이 붙게 된 것은 12세기 후반 무신난을 기점으로 기존의 문벌 체제와 결탁된 불교계에 대한 자각·반성운동의 성격을 띤 信仰結社와 깊은 관계가 있다. 즉 무신난을 기점으로 불교계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조계종과 천태종에 의해 각각 定慧結社와 白蓮結社가 주도 되었고, 이 결과 최씨 정부의 지원 아래 수많은 사찰이 개창되었거나, 寺名의 개역이”<sup>38)</sup>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조계종의 普照國師(1158-1210)의 定慧結社(1190년)와 관련된 주요 사찰은 조계산 修禪社, 강화 禪源社, 김해 甘露社가 있었으며, 천태종의 圓妙(1163-1245)의 白蓮結社(1236년)와 관련된 사찰은 만덕산 白蓮社 등이 있었다. 이처럼 “寺號에 □□社□□의 이름이 붙는 수많은 사찰이 개창되거나 사호가 개역된 것은 12세기의 신앙결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당시 집권세력과 밀접한 관계”<sup>39)</sup>에 있으면서, 조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사찰

36) 慧遠法師; 東洋書의 講題 중 하나인 虎溪三笑의 어원인 虎溪 東林寺의 高僧

37) 『大宋僧史略』卷下, 四十七 結社法集; ‘晉宋間有廬山慧遠法師。化行潯陽。高士逸人輻濟于東林。皆願結香火。時雷次宗炳張詮劉遺民周續之等。共結白蓮華社。立彌陀像。求願往生安養國。謂之蓮社。社之名始於此也’.

38) 盧基春, “새로 發見된 『注 金剛般若波羅密經』과 松廣寺 寺名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9輯(2004. 12) pp.361-380.

을 증창하거나 개창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제주도의 妙蓮社는 천태종 계통의 白蓮結社<sup>40)</sup>와 관계가 있었던 강진 白蓮社의 영향권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주의 妙蓮社가 지리적으로 전남 강진 만덕산 白蓮社와 매우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제주 묘련사에서 판각된 판본이 다른 경전이 아니라 태고종의 개조인 천태지자가 說한 『金光明經文句』였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白蓮社 주변 해안이 제주도와 물을 연결하는 관문이기도 했으며, 이후 妙蓮社는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社’에서 ‘寺’로 寺名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 7. 妙蓮社板 판각 시기의 신앙 관계

묘련사에서 금광명경문구가 판각된 충렬왕 22년(1296)은 法華寺의 증창불사가 완료된 후 17년이 지나서였다<sup>41)</sup>. 묘련사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당시 금광명경문구가 판각되었던 동 시대에 증창불사가 이뤄진 법화사의 사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법화사는 묘련사와는 정 반대 방향인 한라산 남남서쪽에 있는 절로서 조선조 초기까지 비보사찰로서 노비 280명을 거느릴 정도였으나 조선조 중기에 와서 폐사될 만큼 사세가 기울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조의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많은 사찰이 훼손되었고, 당시 존재하였던 제주도내 사찰이 겪었던 일반적인 사항이기도하다. 법화사의 증창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일반 사찰에서 볼 수가 없는 月臺와 雲봉문과 용문의 막

39) 盧基春, “새로 發見된 『注 金剛般若波羅密經』과 松廣寺 寺名에 관한 研究.”

40) 金聖洙,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 第27輯(2004. 6) p.162.

41) 서귀포시,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 p.28. ‘..... 『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

새가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중창 때에 元나라의 良工이 제작한 阿彌陀三尊佛像<sup>42)</sup>을 법당에 모셨다는 것 등을 살펴볼 때, 법화사가 단순하게 승려와 불자의 중심으로 중창된 것이 아니라 元나라에 의하여 원찰로서 불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43)</sup>

제주 묘련사에서 금광명경문구가 판각된 1296년을 전후하여 조정에서는 불사와 야단법석이 많이 이뤄지게 됨을 볼 수가 있다. 충렬왕 20년(1294) 12월에는 왕이 공주와 함께 왕궁 가까이 있는 妙蓮寺에 행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충렬왕 21년(1295) 1월에는 神孝寺에 행차하여 친히 元 世祖의 명복을 기원<sup>44)</sup>하였고, 元에서는 별도의 사람을 보내어 藏經을 轉讀<sup>45)</sup>하게 하였으며, 1296년(충렬왕 22년) 1월에도 왕은 신희사에 나아가 원 세조의 대상<sup>46)</sup>을 지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당시 元과 고려의 관계에 있어서 불교는 상호 기원과 기복신앙의 대상으로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제주도 묘련사에서 금광명경문구의 板刻佛事は 내면적으로는 민중의 향몽의식 고취와 함께 외면적으로는 대몽과의 선린 관계 유지와 공주의 병을 완치시키려는 왕의 기원<sup>47)</sup>이 당시 승려들에 의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42) 太宗實錄. 太宗六年潤四月庚辰 條; 上至館設宴. 酒酣, 儼辭以醉, 先入室. 帖木兒曰: “濟州 法華寺 彌陀三尊, 元 朝時良工所鑄也. 某等當徑取之.” 上戲曰: “固當, 但恐水入耳.” 帖木兒 等皆大笑.

43) 金日宇. 『高麗時代 濟州社會의 變化』(제주: 서울문화사, 2006) p.170.

44) 『高麗史』世家 忠烈王 乙未 二十一年 正月 乙卯; 王與公主, 幸妙蓮寺, 辛酉, 遂幸神孝寺, 皆爲先帝薦福也.

45) 『高麗史』世家 忠烈王 乙未 二十一年 閏四月 己酉; 元, 遣王敬·塔失不花, 賫香幣, 來轉藏經, 王敬, 本國宗姓也.

46) 『高麗史』世家 忠烈王 丙申 二十二年 正月 戊子; 以先帝大祥, 幸神孝寺, 行香.

47) 『高麗史』世家 忠烈王 丁酉 二十三年 五月 庚午; 公主不豫, 設法席, 王, 燃臂.

### Ⅲ.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사실 자료 연구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첫 기록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는 『曹溪山松廣寺史庫』이며, 금광명경문구에 대하여 형태적으로 기록하고 인본의 권수와 권말 등 3板을 인화 편집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이 있다. 이에 확인된 자료와 이외 인용 자료들에 대하여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계산송광사사고』의 사실 연구

『曹溪山松廣寺史庫』는 韓紙 墨書로 筆寫된 淨書稿本이며 4권 4책으로 1934년에 편집되었고, 지금까지 확인된 寺刹 간행 史庫 중 편집과 내용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서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황지이며 紅絲로 6침 되어 있다. 표제는 曹溪山松廣寺史庫, 규격은 가로 29cm, 세로 48cm이다. 내용은 界板에서 찍어낸 인지에 목서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建物部·人物部·山林部·雜部 등으로 편집되었으나, 각 부별로 편집 연대가 다르다.

建物部 편집은 1928년 10월 처음으로 당시 송광사 監務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燮大師가 書寫하였다. 본문 137장으로 반엽은 11행 21자이다. 주 내용은 序, 순천군 약도, 송광사 강역도, 송광사 건물 및 각 사암 위치·평면도·사적·권화문·상량문·기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人物部 편집은 1929년 5월 당시 송광사 講師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燮大師가 서사하였다. 본문 146장으로 반엽은 11행 19자이다. 주 내용은 行狀·비문·疏·綸音·敎書·官語·제문·表·事蹟·記文 등 43명에 대한 기록이다.

山林部 편집은 1931년 11월 당시 송광사 監務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變大師가 서사하였다. 본문 121장으로 반엽은 11행 19자이다. 주 내용은 林野圖·지리·卦山·명체·紛爭·特別緣故林·施業案 등에 대한 기록이다.

雜部 편집은 1934년 3월 당시 송광사 주지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變大師가 서사하였다. 본문 171장으로 반엽은 11행 19자이다. 주 내용은 불상·탱화·刊板·藏經·석물·序·跋·等狀·節目·完文·傳令·建物·佛糧·法齋·官文·住持系譜·書家·遭難·盜難·雜錄·題詠 등에 대한 기록이다.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事實 기록은 雜部 32張 上에 ‘金光明經文句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라고 명기하여 1934년 3월 까지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卷下』가 송광사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2. 『순천송광사장고려판천순판불전』의 사실 연구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sup>48)</sup>은 펜으로 쓰여진 필사본으로서 소화 13년(1938) 6월에 당시 경성에 있던 朝鮮古蹟研究會에서 조사 편집한 단권 1책으로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반양장이며 표지면의 표제는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규격은 46倍判型(세로 26cm)이고 지질은 두꺼운 모조지로 미리 규격을 맞추어 인쇄된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주 내용을 여러 단락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을 기록한 지면은 사전에 일정한 형식의 틀을 세 개로 만들어 인

48)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稿本, 藏書閣 소장. (도1-4 참조)



쇄하여 자료를 수록하였다. 첫 단락의 내용을 수록한 형식의 형태는 반곽 사주쌍변이며 상·하로 단을 구분하였다. 상단에는 해당되는 經의 전체 사항을 표기하였고, 바로 그 아랫단으로 그 經의 명칭과 권수·책수·간략한 간기·저자 등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두번째 단락의 내용을 수록한 형식의 형태는 반곽 사주쌍변이며 상·하로 단을 구분하고 우변에 經의 명칭과 권수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판심체처럼 하여 놓았다. 상단에는 기록사항이 없으나, 반곽 우변의 위에 '金光明經文句', 그 아래로 칸을 분류하여 '卷下 一', 그 아래로 칸을 분류하여 공란으로 두었고, 그 아래의 칸에는 '松廣寺(一三〇)'라 하여 전체를 기록한 張을 표기하고 있다. 하단에는 좌우로 칸을 나누어 상하로 經에 대한 형태적인 서지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았으며, 우변 밖의 아래에 '(昭和 年 月 日記)'라 하여 이 자료 조사가 昭和 연간에 이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은 經을 사진으로 찍어 인화한 자료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 판형식의 형태는 반곽 사주단변이며 우변에 '17·18'이라 하여 17과 18장에 대한 사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張數를 표시하고 있고, 그 아래로 '金光明經文句卷下' 一·表, 二四 裏(雙行 표기)라 하여 17·18장의 사진이 금광명경문구 권하의 첫 장인 卷首題와 24장에 해당하는 사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아래로 '13년 6월 일 촬영'이라 하여 이 經에 대한 사진 촬영이 소화 13년(1938년) 6월에 이뤄졌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우단변 밖으로는 이 자료 조사가 당시 '朝鮮古蹟硏究會'였음을 밝히는 단체명이 인쇄되어 있다. 사진은 3×4규격으로 인화하여 상·하로 각각 붙여 놓았다. 上에는 권하의 첫 장에 해당하는 1장을 붙여 놓아 책의 권수제와 저자 등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또한 經의 가로 규격을

사진 좌상변에 표기하여 22.4cm였음을 나타내었고, 우하변에는 이 경의 첫 장임을 나타내는 ‘一·表’ 표기가 있다. 下의 사진 우하변에는 이 사진이 經의 24장이라는 ‘二·四·四·四’ 표기가 있다. 사진 좌에는 각각 ‘23.7·23.2’라고 표기하여 전곽의 가로 규격이 약간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19장은 ‘金光明經文句疏 卷下 三一·裏’ 그 아래로 ‘13年 6月 日 撮影’ 우변 밖 아래에는 ‘(朝鮮古蹟研究會)’라 하였다. 사진은 금광명경문구 권하의 卷末題와 刊記의 부분으로 卷末에 해당하는 31장을 싣고 있다. 사진의 우하변에 경의 31장을 나타내는 ‘三十一·裏’라 하였고, 사진 좌변 우에는 ‘23.0’라 하여 전곽의 가로 길이가 23.0cm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첫 단락은 順天松廣寺藏內典錄(上) 高麗板 天順印이라 하여, 송광사에 보존된 고려판 중 天順 년간에 인출된 인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서 大般涅槃經疏를 비롯하여 마지막으로 濟州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卷下를 소개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順天松廣寺藏內典錄(中) 天順重刻이라 하여, 송광사에 보존된 판각 중 天順 년간에 판각된 華嚴經論 권51-56 등의 판본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셋째 단락은 順天松廣寺藏內典(下)라 하여, 송광사에 보존된 瑜伽師地論義演 권15~16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단락을 달리하면서 조사된 서지 사항에 근거되는 금광명경문구 간인본의 권수·권말·중간판 등을 각각 사진으로 촬영 인화(규격 9.5cm×12cm)하여 종이에 붙여 놓았으며<sup>49)</sup>, 금광명경문구의 서지사항에 대하여는 金光明經文句卷下 松廣寺(130)으로 張을 분류<sup>50)</sup>하여 이 문구에 대해

49)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稿本, 藏書閣 소장, 1938년 (사진 부분 pp.17-18)

형태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態裁] 冊子 朝鮮紙裝 麻糸五所綴 大サ. 縱四〇.四 橫 三〇.〇  
 表紙 朝鮮白紙貼分厚紙  
 題箋 金光明經文句卷下 縱18.4(題의 좌면 상부 표기) 橫3.9  
 (하단 표기)  
 ..... 墨書 左上部

[刊印] 木板 卷子樣板式 二十七行~十七字  
 界線 天地橫界 天地間 二二.〇-二二.九五 左右 五四  
 用紙 白朝鮮紙 ヒヅ目橫 帶淡黃色 文字モ紙質モ一樣ナラズ  
 板尾 「金光明經文句下 九 杳 金全仁」  
 杳以下刻手ガ. 刻手ノ名ノアハテトナキテア. 二七.二  
 八.板櫛ア

[內容] 卷下ノ 一冊ノミ. 三十一紙

(首) 金光明經文句卷下

☉ ← 黑抹印

天台智者大師說

(尾) 金光明經文句疏卷下 三十一 杳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

宣重彫

幹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

위와 같이 형태적 특징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50)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稿本, 藏書閣 소장, 1938년,  
 <金光明經文句卷下 一 松廣寺(一三〇)>

#### IV. 『금광명경문구』 판각에 따른 분석 고찰

금광명경은 이미 新羅朝 부터 국난이 발생하거나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면 불력을 빌어 물리치고자하여 조정에서는 야단법석을 베푸는 등 많은 법회를 가질 만큼 민중신앙의 원천이었다. 절해 고도였던 제주도에서 판각된 『金光明經文句』와 그리고 금광명경을 통해 論疏된 宗論자료를 살펴보고 나서 鈔畧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하여 형태적으로 분석하고 판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여보고자 한다.

##### 1. 金光明經과 諸宗部에 대한 분석

『金光明經』범어본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金光明最勝王經』, 『合部金光明經』, 『金光明經』 등 3종의 이역본이 나타나게 되나, 이 3종 이외에도 陣의 眞諦(499~569)가 번역한 『金光明王帝經』 전 7권(22품), 後周의 闍那崛多(560~577)가 번역한 『金光明更廣大辯才多羅尼經』 전 5권(20품)등이 있다.

금광명경은 석가모니가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信相菩薩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시작된 대승경전으로서 妙法蓮華經과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과 함께 護國三部經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광명경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나라가 어렵거나 민심이 불안할 때 조정에서는 金光道場의 법석을 만들어 고승을 청해 법문을 들었을 정도로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다.

금광명경은 4세기 무렵 인도에서 성립된 경전으로서 처음 중국에 전한 사람은 中印度의 曇無讖(385~433)<sup>51)</sup>이다. 담무참이 412년(東晉 義

51) 金吉祥, 『佛敎大辭典』(서울: 흥법원, 2001) 참고

熙 8년) 北涼으로 가지고 와 본 經을 한역 하였는데, 다르게 번역한 3종이 더 있다. 구역으로 알려진 금광명경은 쑤 4권으로 번역한 것이 있다. 科文 분류는 三分科經에 따르지 않고 金光明經序品을 第一로 하여 전체 19품으로 과를 나누었다.

金光明帝王經은 554년(梁 元帝 乘聖 3년)에 眞諦三藏에 의하여 두 번째로 번역되었다. 진제는 담무참의 18품 외에 4품을 더하여 7권(혹 6권) 22품으로 번역<sup>52)</sup>하였다.

合部金光明經은 隋나라의 大興善寺의 寶貴가 번역하였다. 이 경은 北涼의 담무참이 번역한 『金光明經』을 저본으로 하여 囑累品 第十九를 제외한 18품과 梁나라의 眞諦가 번역한 『金光明帝王經』 7권 23품 중 4품(三身分別品·業障滅品·陀羅尼最淨地品·依空滿願品)을 더하고, 隋나라의 도나굴다가 번역한 『金光明銀主陀羅尼經』 1권 중 2품(銀主陀羅尼品·付囑品)을 합하여 24품<sup>53)</sup>으로 편집하였다. 내용은 구역 금광명경과 같으나, 3종의 경을 모아 전 8卷 24품으로 분류된 것이 다르다. 과문 분류는 삼분과경에 따르지 않고 合部金光明經序品을 第一로 하고 金光明經付囑品第二十四를 마지막으로 하여 전체 24품으로 과문되

52)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구인사, 『金光明經·金光明經玄義』(서울: 민족사, 1996) pp.13-14.

53) 『合部金光明經』序; ..... '而金光明。見有三本。初在涼世。有曇無讖。譯爲四卷。止十八品。其次周世。闍那崛多。譯爲五卷。成二十品。後逮梁世。眞諦三藏。於建康譯。三身分別。業障滅。陀羅尼最淨地。依空滿願等四品。足前出沒。爲二十二品。其序果云。曇無讖法師。稱金光明經。篇品闕漏。每尋文揣義。謂此說有微。而讖校無指。永懷寤寐。寶貴每歎。此經秘奧。後分六何。竟無囑累舊雖三譯。本疑未周。長想梵文。願言逢遇。大隋馭寓。新經卽來。帝敕所司。相續翻譯。至開皇十七年。法席小闕。因勸請 北天竺提陀羅國三藏法師。此云志德。重尋後本。果有囑累品。復得銀主陀羅尼品。故知法典源散。派別條分。承注末流。理難全具。賴三藏法師。慈性沖明。學業淹涼。內外經論。多所博通。在京大興善寺。卽爲[番\*飛]譯。并前先出。合二十四品。寫爲八卷。'

어 있으며 이상 3종은 舊譯이다.

金光明最勝王經은 唐의 義淨(635~713)이 인도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원본을 전 10권으로 번역한 것으로서 新譯이다. 금광명최승왕경이라 한 것은, 이 경이 모든 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금광명최승왕경이라 하였다. 내용은 구역 금광명경과 같으나, 전 10권, 31품으로 분류된 것이 다르다. 과문 분류는 삼분과경에 따르지 않고 金光明經序品을 第一로 하고 金光明最勝王經付囑品第三十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전체 31품으로 과문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금광명경에 대한 조사들의 견해 또한 추구하는 중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금광명경과 관련한 論疏에는 金光明經疏 6권(眞諦述), 金光明經疏 4권(鷲韶述), 金光明經文句 3권(天台說), 金光明經科 2권(亡名), 金光明經文句科 2권(知禮述), 金光明經文句記 6권(知禮述), 金光明經疎 8권(元曉述), 金光明經疎 10권(有則述), 金光明經科文 3권(智昭述), 金光明經大科 1권(智昭述), 金光明經辨正鈔 7권(智昭述), 金光明經疏 3권(玄暢述), 金光明經述贊 7권(憬興述), 金光明經述記 4권(太賢述), 金光明經述記 3권(靈順述), 金光明經玄義 1권(天台說), 金光明經玄義科 1권(知禮述), 金光明經玄義拾遺記 3권(知禮述), 金光明經釋難扶宗記 1권(知禮述), 金光明經十義書 5권(知禮述), 金光明經科 1권(繼忠述), 金光明經經王解 1권(曇鑑述), 金光明經懺法補助儀 1권(遵式述), 金光明經略記 1권(遁倫述), 金光明經略意 1권(憬興述), 金光明經料簡 1권(太賢述)<sup>54)</sup> 등이 있을 만큼, 금광명경은 중국의 江南과 江北의 조사들뿐만이 아니라 新羅朝에 있어서도 논소의 대상이었다.

54) 정필모, 『高麗佛典目錄研究』,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주, 2004), p.313(新編諸宗教藏總錄 3권)

## 2.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자료 분석

금광명경문구는 金光明經玄義·觀音玄義·觀音義疏·觀無量壽經疏와 함께 天台五小部の 하나로서 天台宗의 開祖인 天台智者(538~598)가 說한 것으로서 금광명경을 자세하게 번역한 주석서이다. 금광명경현의가 금광명경을 바라보는 천태의 관점을 金光明이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라면, 금광명경문구는 금광명경현의에서 말한 관점을 근거해서 금광명경을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금광명경현의가 금광명경에 대해 천태의 관점을 총론한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명경문구는 그 총론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주석<sup>55)</sup>한 것이다.

금광명경이 이처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불교가 호국불교로서의 전통의 맥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도 금광명경의 내용처럼, '만약에 왕이 금광명경을 호지하게 되면 모든 국토가 안정이 되고 백성의 고통을 여의며 모두가 안락을 얻게 되기'<sup>56)</sup> 때문에 불력에 의지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당시 왕조와 민중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크고 작은 절에 관계 없이 사찰 입구에 사천왕문을 세워 부처님의 위엄을 보이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진다.

이러한 금광명경문구는 금광명경에 대하여 천태지사 대사가 설하고 그의 상수제자인 章安 灌頂(561~632)이 기록한 주석서로서 전 3권<sup>57)</sup>으

55)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구인사, 『金光明經文句』(서울: 민족사, 1996) p.11

56) 『金光明經』 卷第二, 金光明經四天王品第六;.....世尊.若有人王.欲得自護.及王國土.多受安樂.欲令國土.一切衆生悉皆成就.具足快樂.欲得摧伏一切外敵.欲得擁護一切國土.欲以正法.正治國土.欲得除滅衆生怖畏.世尊.是人王等.應當必定聽是經典.及恭敬供養讚誦受持是經典者.我等四王.及無量鬼神.以是法食善根因緣.得服甘露無上法味.增長身力.心進勇銳.增益諸天.何以故.以是人王.至心聽受是經典故.'

57)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

로 되어 찬술되어 있으나, 신수대장경에는 전 6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천태는 隋나라의 고승으로서 천태종의 개조이다. 38세에 천태산에 들어가 수선사를 창건하고 무희경을 중심으로 천태종을 만들었으며, 法華玄義·금광명경문구 등 30여종의 많은 논소를 남겼다. 다음 금광명경문구의 내용은 신수대장경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다.

金光明經文句卷第一

隋天台智者大師說

門人灌頂錄

此四卷文。總有十八品。舊來分割盈縮不同。江北諸師以初品爲序。壽量下訖捨身爲正。讚佛爲流通。正文又三。壽量下是正說。四王下大誓護經。除病下大悲接物。江南諸師以初品爲序。壽量下爲正。四王下十三品爲流通。眞諦三藏分新文二十二品。初品爲序。壽量下至捨身十九品爲正。後兩品爲流通。..... 爲煩惱障便

金光明經文句卷第一

金光明經文句卷第二

隋天台智者大師說

門人灌頂錄

報障如上可解。煩惱與業云何。數人云。數起而輕名煩惱。數起而重名爲業。天台師云。任運常有是煩惱。..... 亦不見境。境智俱寂卽是不境義也(云云)。

金光明經文句卷第二

金光明經文句卷第三

隋天台智者大師說

門人灌頂錄



釋懺悔品

諸大乘經多分散明懺悔。此經專以懺悔當品。今先釋名。懺者首也。…… 從信相當知下兩行是第三結會古今。如文  
金光明經文句卷第三

金光明經文句卷第四

隋天台智者大師說

門人灌頂錄

釋空品

夫空者應有四種。謂減色入空。卽色是空。減邊入空。卽邊是空。…… 得不壞常住名波羅蜜。豎高橫廣故言連條諸行也  
金光明經文句卷第四

金光明經文句卷第五

隋天台智者大師說

門人灌頂錄

釋四天王品

四天王者。上升之元首。下界之初天。居半須彌。東黃金埵王名提頭賴吒。…… 諸論初亦先歸敬。此文是說竟歸依三寶。在文可尊也  
金光明經文句卷第五

金光明經文句卷第六

隋天台智者大師說

門人灌頂錄

釋正論品

正論者。正名爲聖。聖有二種。一。世聖。二。出世聖。論名嚴實。…… 既無理觀事觀亦不成。無六亦無三此之謂也。此大好甚廣云云  
金光明經文句卷第六

천태지자의 금광명경문구 卷下는 신수대장경의 금광명경문구 卷5~6에 속한다.

### 3.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의 형태적 분석

『金光明經文句』를 실사하기 위하여 1934년까지 보관되었던 송광사를 찾아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현재 송광사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렬왕 22년(1296) 제주 妙蓮社<sup>58)</sup>에서 판각된 『金光明經文句』의 사찰판본은 현재 까지 제주도에서 판각된 목판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판본이 없고 刊印本 또한 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인용된 여러 일반자료<sup>59)</sup>들이 있으나, 본 고에서는 간인본의 사실을 형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934년 에 편집된 『曹溪山松廣

58) 李元鑣,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佛宇 條: “妙蓮寺 在州南二十里 ……”

59)① 藤田亮策, 『紙反古』,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日本國 京城府: 書物同好會 昭和十三年), p.35-37. “く ……” 同しく松廣寺藏の「金光明經文句疏」卷下 一冊は元貞二年濟州妙蓮社奉宣重修の刊記があり, 又天順の再印本かと思はれる.”

② 千惠鳳, 『韓國 書誌學』(서울: 민음사, 2004), p.204.

③ 鄭亨愚·尹炳泰 共編, 『韓國冊版目錄總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48. ‘金光明經文句疏. 卷下末: 刊記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 宣重雕…」’

④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p.109. ‘金光明經文句解,’

⑤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曹溪山松廣寺史庫』(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p.777. ‘金光明經文句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⑥ 尹炳泰 편, 『韓國古書年表資料』(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69), p.4. ‘金光明經文句疏 卷下末: 刊記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

⑦ 尹炳泰 편, 『韓國書誌年表』(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p.6. ‘是歲 濟州 妙蓮社에서 金光明經文句疏를 重彫하다.’

⑧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2001) p.91. ‘元貞二年丙申歲(忠烈王 22, 1296)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修 幹善瀑布寺住持禪師安立과 같이 그 형식이 續藏의 元刊記를 본 받고 있음이 특징이다.’

寺史庫』와 1938년에 편집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 근거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첫 기록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는 『曹溪山松廣寺史庫』이다. 『曹溪山松廣寺史庫』는 1934년에 송광사에서 작성된 稿本으로서 현전하는 사찰 사고 중 매우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하여는 “金光明經文句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라 하여, 송광사 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전적 중 金光明經文句卷下는 元貞二年. 고려 충렬왕 22년. 丙寅(1296)에 高麗國 濟州 妙蓮社에서 重彫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卷下』는 목판본으로 전 3권(上·中·下)중 1책으로서 1296년에 판각되었으나, 현전하는 간본의 소장처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간인 자료<sup>60)</sup>에 의하여 판본 상태<sup>61)</sup>를 살펴보면 卷首題의 1張은 온전하나 24張과 마지막 31張은 많이 마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 1張인 경우 당초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補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형태적 특징<sup>62)</sup>을 살펴보면 표지는 白紙이며 麻絲로 5針되어 있고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40.4cm이다. 판식은 板首題와 板尾題 다음으로 卷次·張數·千字函次表示순으로 되어 있어 敎藏의 예를 따르고 있다. 판식은 상하 단변 全郭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22~23cm, 세로 54cm이고 계선은 없으며 全郭은 27행으로 行字數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板尾題는 金光文句下이고 그 아래로 查字를 새겨 넣어 寸字합차를 표시하였으며 그 아래로 장수를 표시하고 있고 卷下의 전체 장수는 31

60)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稿本, 藏書閣 소장.

61) 사진자료 참조(도1-3)

62)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장이다. 九張의 板尾에는 杻 다음으로 金全仁이라는 人名이 각인되어 있으며, 24張의 板尾와 27~28張의 板尾에도 각수의 銘<sup>63)</sup>이 있다.

卷首題는 金光明經文句卷下이고 다음 행으로 論疏者를 밝히는 天台智者大師說이 있고, 다음 행으로 科文을 나타내는 釋四天王品이 있으며, 다음 행으로는 文句의 본문인 四天王者 上升之元首 下界之初天 居半須彌(사천왕은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첫 머리에 있고 아래 세계의 첫 번째 하늘로써 수미산의 절반 높이.....)라 하여 金光明經文句가 천태 지자대사가 말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24張에는 月臘月 是陰月 故言若二三說 足滿六時 .....(10월과 11월은 陰의 달이다. 그러한 까닭에 만약 이이二二로 설명한다면 족히 六時를 채우게 된다.)라 하여 釋除病品の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卷末에는 不成 例如三衣六物 若解其意 三六俱成 ..... 成 無六 亦無三 此之謂也 此大好甚廣云云(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三衣와 六物의 경우 만약 거기에 담겨진 뜻을 안다면 삼의와 육물이 구족되지만 .....六物이 없으면 三衣도 없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觀(觀心)은 크게 좋고 매우 넓은 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 하였으며, 다음 행으로 金光明經文句疏卷下라 하여 金光明經文句卷下가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아래로 三十一이라 하여 장수를 표시하였으며, 그 아래로 천자합 표시인 杻字를 새겨 넣었다.

다음 행으로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라 하였고 다음 행으로 宣重彫라 하여 金光明經文句卷下가 충렬왕 22년(1296) 고려국 제주 묘련사에 판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행으로는 幹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이라 하여, 당시 판각불사의 幹善<sup>64)</sup>은 瀑布寺<sup>65)</sup>의 주지

63) 24張 板尾 刻手는 守玄임.

64) 幹善은 절에서 佛事 등을 할 때의 所任(供養主, 三綱, 書記, 持殿, 別座, 維那, 都

였던 安立이 말아서 주도적으로 金光明經文句가 鈔本에서 판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송광사 소장 鈔本 「金光明經文句卷下」의 간인 시기는 天順 연간(1457~63년)으로 이 때에 인출<sup>66)</sup>되었고 또한 조선조의 간경도감에서도 금광명경문구소 권3이 인출<sup>67)</sup>된 것으로 보인다.

#### 4. 제주 鈔本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고찰

금광명경은 법화경·인왕호국반야파라밀경과 함께 鎮護國三部經으로서 중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국가에 변란이나 외침이 있을 때에는 임금이 고승을 초청하여 법회를 열어 설법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고려조에서는 명종 10년(1180) 3월에 불 같은 붉은 기운이 나타나자 이를 불력을 빌어 소멸하고자 하여 금광명경 법석을 大安寺에 차려 이러한 기운을 소멸하게 하였다.<sup>68)</sup>

제주도에서 금광명경문구가 개판된 1296년은 삼별초가 1270년 11월 제주에 입도한 후 1273년 4월 여몽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된 후 23년, 법화사의 증창불사(1269~79)가 완료된 후 17년이 지난 시기로서 당시 제

監, 幹善主, 刻工 등)임

65) 瀑布庵(寺)로 의심됨(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용계리 금강산 내 鉢淵洞 '鉢淵寺' 위에 있던 절이며 瀑布庵이라고도 함)

66) 藤川亮策, 『紙反古』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日本國 京城府: 書物同好會 昭和十三年). p.35-37. “く……又天順の再印本かと思はれる.”

67) 김무봉,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제23집 (2004. 1) p.380.

68) 高麗史 誌 五行 火 明宗 十年三月癸丑, 乾方, 有赤氣, 如火, 設大佛頂讀經於內殿, 設金剛明經法席於大安寺, 以禳之.

주는 元의 지배 세력이 매우 막강하였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변방의 작은 사찰에서 금광명경문구가 판각된 것이다. 당시에는 元의 요구에 의해서 발을 비롯한 각종 특산물 등이 元으로 강제 공출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妙蓮社에서의 불경 판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금광명경의 지니는 의미로 보아 당시 승려들이 전대미문의 몽고지배라는 굴욕적인 국가적 어려움을 금광명경이라는 불력을 통해 이러한 국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이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금광명경문구 판각이 瀑布寺 주지에 의하여 판각불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간기에 표기된 것처럼, 폭포사의 주지는 禪師라는 법계 호칭이 사용될 만큼 고승이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천태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는 금광명경문구가 천태종의 개조인 천태지자 대사가 說하였고, 萬德山 白蓮社에서 천태종을 중흥시킨 了世(1163~1245)도 천태요종인 觀無量壽經妙宗鈔에서 一心三觀과 觀無量壽經의 16觀을 회통하여 천태사상과 정토신앙을 무리 없이 결합할 수 있는 이론과 사상을 이루는 주석서가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묘연사가 제주불교에서 천태사상의 중심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할 수가 있다.

아울러 제주 묘연사가 강진 白蓮社의 天台宗徒들 간의 교류 중심으로서 이에 필요한 불전을 판재가 풍부한 제주도에서 판각하여 널리 범보시함으로써 민중들의 향몽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시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3세기에 제주도에서 木板이 판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제주사회의 문화사적 측면에서 목판 제작에 대한 상당한 기술이 이미 축적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 당시 제주 문화사를 이해하는 가늠이 될 수가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판각 기술

은 태종 18년(1418) 3월 「禮記淺見錄」<sup>69)</sup>이 복각된 것을 시작으로 19세기 말 까지 100여 板種의 판본이 개간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 V. 결론

본 고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판각된 묘련사판 고려본 『金光明經文句』에 대해 판본이나 인본이 아닌 2차적인 자료에 의하여 살펴 볼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당시 인본을 촬영한 자료와 그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형태적으로 분석한 「順天松廣寺藏 高麗板 天順板 佛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첫째,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판각은 敎藏의 예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주도에서 판각된 판본류 중 제주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가 지금까지 확인된 판본류 중 가장 시대가 앞선 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 제주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내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다. 본 자료 인본에는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인데, 간지가 생략되거나 彫가 동일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여 '重彫'를 '重修·重雕' 등으로 인용하였고, 經名 또한 『金光明經文句卷下』를 『金光明經文句解』 등으로 다르게 인용되었었다.

넷째, 비록 2차 자료이긴 하나, 제주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에 대한

69)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板本(癸未字覆刻), 26卷, 1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四周單邊 半郭 22.8×14.4cm, 有界, 8行17字 小字雙行, 間混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7×17.7cm, 序: 淺見錄序: 永樂五年(1407)…河崙. 集說序: 至治壬戌(1322)…陳澹, 跋: 永樂十六年(1418)戊戌…河崙. 濟州.

형태적 특징이 자세히 확인된 점이다.

다섯째, 인본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통하여 卷首題의 1張 등이 당초 판본을 지본으로 하여 일부 훼손이 심한 판본을 補刻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당시 송광사에 보존되었던 간인본이 천순연간에 인출되었으며, 1938년 까지 송광사에 보존되었던 금광명경문구 권하는 보각본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여섯째, 금광명경문구가 지니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 제주 사회의 문화 현상과 경을 판각함으로써 몽고에 대한 항몽의지를 살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확인을 통하여 元의 억압 속에서도 불력을 의지하여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가 제주도의 板本 事實을 새롭게 조명 연구하는데 매우 획기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瀑布寺의 住持가 제주 묘련사에서 금광명경문구를 판각한 시대적·사상적 배경 규명과 13세기 제주 문화사 재 조명, 그리고 묘련사 판 이외의 고려본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1938년까지 보존되었던 金光明經文句의 간인본 확인에 대하여서도 향후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조계산송광사사고, 송광사장고려판천순판불전, 제주묘련사판금광명경문구



## 참고문헌

- 北京 三藏法師 曇無讖 譯. 『金光明經』, 海印寺所藏, 木板本.  
一然. 『三國遺事』, 影印本.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3.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개인소장.  
松廣寺, 『曹溪山松廣寺史庫』 권4. 4책. 稿本. 1934년 편집. 송광사 소장.  
韓國學文獻研究所.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高麗史』 志.  
『高麗史』 世家.  
濟州道. 『濟州道誌』, 제1권. 제주: 경신인쇄사. 1993.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大宋僧史略』 卷下. 四十七. 結社法集.  
盧基春. 「새로 發見된 『注 金剛般若波羅密經』과 松廣寺 寺名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9輯(2004. 12)  
金聖洙.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 第27輯. 2004. 6.  
西歸浦市.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 서울: 大明企劃. 1998.  
『朝鮮王朝實錄』 太宗.  
李源祚. 『耽羅志草本』, 1703년(草稿) 影印本.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金吉祥. 『佛教大辭典』, 서울: 흥법원. 2001.  
『金光明經』, (신수대장경)  
정필모. 『高麗佛典目錄研究』,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주. 2004.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2. (新編諸宗教藏總錄)  
藤田克策. 「紙反古」,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 日本國 京城府: 書物同好會. 昭和十三年.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2004.  
鄭亨愚·尹炳泰 共編. 『韓國冊版目錄總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2001.
- 김무봉,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제23집, 2004. 1.
-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稿本, 藏書閣 소장, 1938.
- 金日宇, 『高麗時代 濟州社會의 變化』, 제주: 서울문화사, 2005.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구인사, 『金光明經·金光明經玄義』, 서울: 민족사, 1996.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구인사, 『金光明經文句』, 서울: 민족사, 1996.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 尹炳泰, 『韓國古書年表資料』,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69.

Abstract

A Study of *Kumkoangmeongkeongmunku* Printed from Woodblocks at Jeju Myoreonsa in the 13th Century

Yoon, Bong-taek\*

This study of *Kumkoangmeongkeongmunku*(金光明經文句) printed from woodblocks at Jeju Myoreonsa in the 12th Century is focused on the fact and historical value on the ground of *Jokyeosansongkoangsasako*(曹溪山松廣寺史庫) was recorded in 1938 and *Suncheonsongkoangsajangkoreapancheonsunpanpuljeon*(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was edited and examined by *Joseongojeokyeonkuhoe*(朝鮮古蹟研究會) in 1934. *Kumkoangmeongkeongmunku* is described in detail and is inserted its photographs in *Suncheon-songkoangsajangkoreapancheonsunpanpuljeon* Quotations from the *Kumkoangmeongkeongmunku* have committed a lot of mistakes We can correct those mistakes and verify that *Kumkoangmeongkeongmunku* is the oldest thing printed from woodblocks in Jeju through this report of investigation

---

\* Master's Cours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Jokyeosansongkoangsasako, Suncheonsongkoangsajangkoreapancheonsun  
-panpuljeon, JejuMyoreonsapanKumkoangmeongkeongmunku*

교신: 윤봉택 (837-37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316-5  
(E-mail: seogwipo@hanmail.net 전화: 010-9460-5015)

최초 투고일 2006. 5. 17

최종 접수일 2006. 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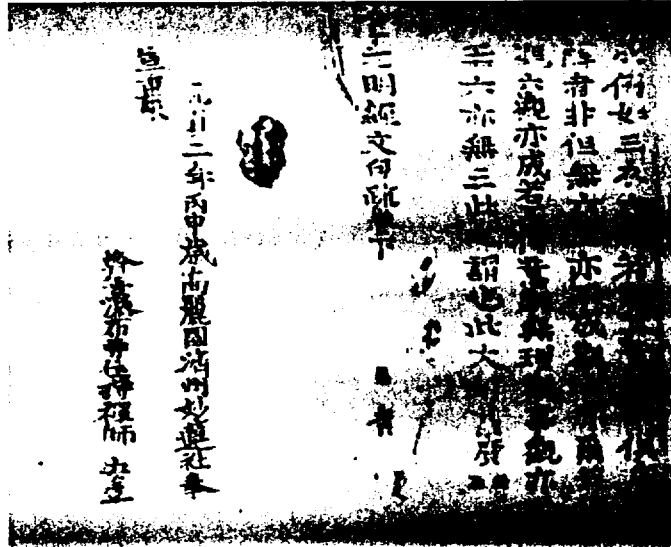
金光明經文句卷下  
天台智者大師說

釋曰天王品  
四天王者上升之元首下界之初天居半須彌東黃金埵王名提頭賴吒此翻持國領乳閻婆富單那南瑠璃埵王名毗留勒叉此翻增長領鳩槃荼薛荔多西白銀埵王名毗留博叉此翻雜語領毗舍闍毒龍北水精埵王名毗沙門此翻多聞領夜叉羅刹此四王階級歡喜各領五百眷屬發誓護經從此標章故稱四天王品觀心釋者東集南此滅四諦理是四天王觀四諦智為四護境名護國護心教是護眾生世者他他觀心教名護他界八部者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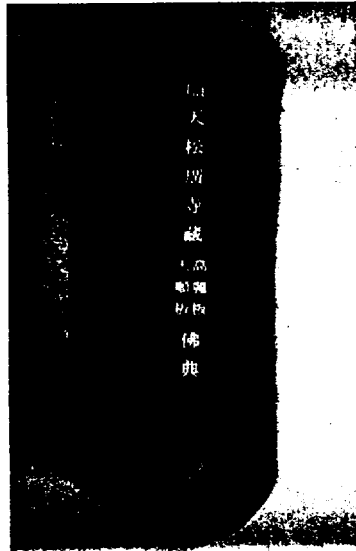
(도1-1) 사진자료 권수제 1장(表)

臘月是陰月故言若二說足滿六時三  
二攝依俗法者正月是春分本月攝後兩  
二表屬春分四月為夏本月攝後兩月為夏  
二分七月為秋本月攝後兩月為冬秋分十  
二為冬本月攝後兩月為冬冬分三三本攝  
二又云正月二月正是春時木於中王王寄  
三月攝屬春時四月五月正是夏時火於中  
三王寄六月攝屬夏時七月八月正是秋時  
三於中王王寄九月攝屬秋時十月十一月  
二為冬時水於中王王寄臘月攝屬冬時二  
四季正時為本各三月並攝於土故言三  
攝攝主攝於空容是土也何佛法言三三  
攝者本時各三月既廢秋時以秋之三

(도1-2) 금광명경문구 권하 24장(裏)



(도1-3) 권말제 31장(裏)



(도1-4)장서각 소장본(조선고적연구회)